

# 대구지역 다문화 유관 기관의 아카이빙 활동 현황에 관한 연구\*

## Current Status of Archiving Activities of Multicultural Service Agencies and Organizations in Dae Gu Metropolitan City

조 용 완(Yong Wan Cho)\*\*

〈 목 차 〉

I. 서론	IV. 다문화 관련 정보자원의 수집 활동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외부에서 발송한 자료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2. 다문화/다국어 도서
3. 선행연구	3. 박물관자료
II. 조사지역 및 대상기관	V. 다문화 관련 정보자원의 관리 활동
1. 조사지역의 다문화 현황	1. 공문서와 상담일지 관리
2. 대상기관의 현황	2. 다문화/다국어 도서 관리
III. 다문화 관련 정보자원의 생산 활동	3. 기타 다문화 관련 자료 관리
1. 오프라인에서의 정보 생산	VI. 다문화 관련 아카이빙 활동의 특징
2. 온라인에서의 정보 생산	VII. 결론 및 제언

### 초 록

본 연구는 대구 지역 다문화 유관 기관들의 다문화 정보자원의 생산, 수집, 관리를 포함하는 아카이빙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시청 다문화팀, 다문화 관련 센터와 시민단체, 공공도서관 등 총 12곳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정보자원의 생산, 외부 정보자원의 수집, 그리고 공문서와 상담일지, 다문화 도서, 박물관자료 등의 정보 관리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들도 나타났다. 향후 다문화 유관 기관들은 정보생산, 수집, 관리에서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도서관은 다문화 유관 기관들의 자료에 대한 수집과 조직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양측은 협력적 아카이빙 활동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다국어, 도서관, 아카이브, 정보 관리, 협력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urrent status of archiving activities related to producing, collecting and managing information resources of multicultural agencies and organizations in Dae Gu. To do this, 12 agencies and organizations including Multicultural Team of Dae Gu,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foreign worker support center, NGOs for immigrants and public libraries were visited. As a result, these agencies and organizations have struggled for producing information resources through online and off-line, collecting information resources from external bodies and managing information resources like official documents, counseling reports, multicultural books and artifacts. But there were problems in archiving information resources. In order to solve problems, first, multicultural agencies and organizations should reinforce responsibilities to produce, collect and manage information resources. Second, public libraries should actively try to collect and organize information resources from these agencies and organizations. Finally, cooperative archiving activities between multicultural agencies and organizations and public libraries are needed.

Keywords: Multilingual, Library, Archive, Information management, Cooperation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_2013S1AB8 A01054225).

\*\*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조교수(yongwan@cu.ac.kr)

•논문접수: 2016년 5월 18일 •최초심사: 2016년 6월 1일 •게재확정: 2016년 6월 17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2), 125-155, 2016. [http://dx.doi.org/10.16981/kliss.47.201606.125]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 명 시대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월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표 1>과 같이 총 1,943,576명으로 2016년 4월말 현재 행정자치부가 집계한 우리나라 총인구(51,584,349명) 대비 약 3.8% 수준이다. 최근 3년간 매년 최소 10만 명 이상 체류 외국인이 증가한 것을 비춰보면, 올해 안에 체류 외국인 200만 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표 1>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2016년 3월 현재,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총 계	장기체류			단기체류
	소계	등록	거소신고	
1,943,576명	1,465,005명	1,134,619명	330,386명	478,571명

이러한 다문화적 사회 변화를 맞아 우리사회의 각 부문, 즉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등에서는 이주민들의 정착과 적응, 그리고 기존 주민들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활동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자원들이 전국적 차원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생산, 수집, 조직, 유통되고 있다. 한국사회와 지역사회 소개뿐만 아니라 비자, 시민권, 결혼, 노동, 생활, 보건, 여가, 교육, 인권 등에 관해 생산된 자료들은 각 지역의 다문화 관련 기관과 단체로 전달되어 해당 기관과 단체에서 수집, 보관하거나 이용자나 회원 등에게 배포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 시민단체들의 기록 및 정보 관리 활동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sup>1)</sup> 다문화 관련 시민단체들도 이러한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다문화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내 담당부서나 정부/지자체의 위탁을 받은 다문화 유관 기관들도 다문화 관련 자료에 대한 관리를 주요 업무로 인식하지 않고 있어 시민단체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보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 조직, 보존, 제공의 책임을 가진 공공도서관들은 도서관의 전통적인 매체인 단행본 도서와 DVD 등으로 생산된 다문화/다국어 자료 관리에는 중점을 두지만 국가 또는 지역 단

1) NGO들의 기록관리 업무에 관한 한 연구에서는 1. 기록관리 관련 규정의 미비, 2. 문서 및 기록관리를 활동가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 3. 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부재 4. 기록의 활용 용도를 활동가 업무 참조용으로 국한하는 경향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임진희 2010, 17-19).

위의 다문화 유관 기관들이 생산, 수집한 다양한 정보자원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거주 이주민과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 나아가 관심있는 지역주민에게 유용한 다문화 관련 자료들이 짧은 기간 유통된 후 사장되거나 폐기되어 당대에 널리 활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후대에 전승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지역사회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들과 다문화/다국어 자료를 구비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공도서관들의 다문화 관련 정보자원에 대한 생산, 수집, 관리를 포괄하는 아카이빙 활동(김익한 2013, 18)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자가 거주하는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지역적 범위는 대구광역시로, 그 이유는 연구자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연구대상에 대한 접근 편의성 때문이다. 연구대상 선정과정에서 대구광역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문화 유관 기관들 중에서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지자체와 정부부처나 지자체의 위탁으로 운영되는 다문화 관련 센터들, 사회운동 차원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 그리고 각종 다문화/다국어 자료를 구비, 제공하는 공공도서관들이 고루 포함되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정책관 산하의 다문화팀, 여성가족부의 지원과 구청의 위탁으로 운영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2곳과 고용노동부의 위탁으로 운영되는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주를 위한 지원센터 1곳,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리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2곳,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 3곳과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2곳, 그리고 다문화 작은도서관 1곳 등 총 12곳이 연구대상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2개의 다문화 유관 기관의 다문화 관련 정보자원에 대한 생산, 수집, 관리 활동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복수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집합적 사례연구를 통해 사례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유기웅 2012, 101-103). 사례연구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은 연구자가 12개의 다문화 유관 기관을 방문하여 책임자, 중간관리자, 담당자 등과 실시한 반구조적 인터뷰를 통해 주로 이루어졌는데, 소요 시간은 짧게는 30-40분에서 길게는 60-70분 정도였다. 방문 인터뷰를 보완하기 위해 몇몇 담당자와는 추후 전화 인터뷰도 실시하였다. 주요 인터뷰 내용은 해당 기관과 단체의 일반 현황, 다문화 정보자원의 생산 실태와 주요 생산자료, 다문화 정보자원의 수집 실태와 주요 수집자료, 생산 또는 수집된 다문화 정보자원에 대한 관리 실태와 관리시스템 등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방문과정에서 해당 기관이 생산하거나 외부에서 제공받은 다문화 관련 자료 등을 피면담자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하였고 담당자의 허가를 받고 해당 기관의 다문화 관련 자료 보관 실태를 직접 관찰하였으며 필

요한 경우, 사진을 촬영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 3.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 참조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지역사회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된 연구들과 다문화사회에서 도서관의 활동과 서비스에 관한 연구들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지역사회의 아카이브 구축 활동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영숙(2005)은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증가한 최근의 상황에서 시민단체 기록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환경연합을 사례로 인터뷰와 업무분석, 기록조사 등을 통해 시민단체의 기록 분류체계와 기록 처리일정표 개발 방법을 제시하였다. 임진희(2010)는 NGO의 활동에 대한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 기반의 NGO와 주제 기반의 NGO 등 2곳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NGO들의 기록관리 실태에 여러 문제점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NGO 기록관리 표준지침서의 개발, 전자문서와 메일 등 전자기록에 대한 관리 솔루션 제공, NGO 기록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책임있는 대안 제시, NGO 기록관리 실무경험의 축적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영남(2012)은 뉴욕주 Stony Brook 대학교의 Herstory Collection과 충남 홍성군의 풀무학교 전공부의 개교 10주년 컬렉션을 통해 공동체 아카이브의 구축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소수자들의 기록에 대한 아카이빙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거대 국가와 개인 사이의 위치한 인권단체, 사회단체, 지역공동체, 소수자 공동체 등에 대한 아카이브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국내의 다문화적 변모가 강화되면서 국내 도서관계와 문헌정보학계에서도 다양한 다문화 관련 연구들의 수가 증가하였는데, 그 중에서 외국의 공공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사례나 선도적인 국내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공공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의 필요성을 제시하거나 서비스 개선방향을 논의한 연구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조용완 2007; 조용완 2011; 양수연, 차미경 2011; 노지현 2012; 이연옥, 장덕현 2013; 김기영, 오해연 2014; 박성우 2015). 이러한 연구들 중 일부는 본 연구의 내용과 관련성이 깊은 연구들도 존재하였는데, 지역사회 다문화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제시한 한 연구(이혜원 2015)에서는 동일지역 내 지자체, 학교, 사회복지단체, 도서관 등의 다문화 서비스에서 중복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역할 분담 체계를 제안하고 도서관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다문화 기관들 사이의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최근 국내의 다문화적 변모와 달리,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의해 발생한 코리아 디아스포라와 관련된 아카이빙 활동에 관한 연구도 있었는데, 장우권(2012)은 19세기 중엽 이후 구 소련과 중국 등으로의 코리아 디아스포라와 관련하여

도서, 신문, 잡지, 방송 프로그램, 문화예술 관련 공연자료 등의 생산현황과 코리안 디아스포라 정보자원들에 대한 해당 국가 도서관과 기록보존소들의 보존,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향후 이들 정보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사공복희와 장우권(2004)은 중국 내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신문사, 방송사, 잡지사, 출판사, 도서관, 당안관 등을 토대로 조선족의 정보자원 콘텐츠 생산현황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조선족 관련 정보자원 콘텐츠의 생산흐름과 생산 프로세스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다문화사회에서 지역 내 다문화 관련 기관과 단체 등이 생산하거나 수집한 정보자원의 가치와 지역사회 내 협력을 기반으로 한 다문화 정보자원에 대한 아카이빙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재인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내의 특정 지역을 구체적인 사례로 설정하고 그 지역의 다문화 유관 기관들의 다문화 관련 정보자원의 아카이빙 실태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구광역시에 한정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다문화 정보의 생산, 수집, 관리 실태를 살펴본 본 연구는 나름의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II. 조사지역 및 대상기관

### 1. 조사지역의 다문화 현황

2015년 현재 대구광역시의 외국인 주민 수는 <표 2>와 같이 37,610명으로 같은 해 대구광역시 전체 인구(2,493,264명) 대비 1.5% 수준이었다. 앞에서 본 2016년 4월말 현재 국내 총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인 3.8%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9년간의 지역 내 외국인 주민의 변동 추이를 보면, 대구광역제도 지속적으로 다문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연도별 대구광역시 외국인 주민 변동 추이(출처: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외국인 주민 (명)	17,104	20,731	22,822	25,424	26,002	28,153	31,231	32,522	34,976	37,610

이러한 대구광역시의 외국인 주민 수를 8개 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본 결과, <표 3>과 같이 공단지역을 끼고 있는 달서구와 달성군, 북구 등에 상대적으로 많은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중심 상업지구인 중구와 중구 다음으로 인구수가 적은 남구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2호)

〈표 3〉 2015년 대구광역시 기초지자체별 외국인 주민 현황(출처: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지자체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대구 합계
외국인 주민(명)*	1,185	3,162	3,925	1,748	7,006	2,772	11,794	6,018	37,610
다문화가족(명)	228	1,008	978	443	1,239	644	1,986	806	7,332
외국인근로자(명)	198	462	1,202	199	1,620	607	4,668	3,392	12,348
외국인유학생(명)	27	33	5	74	1,622	26	1,362	20	3,169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 혼인귀화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외에 외국국적 동포(3,064명), 기타 외국인(4,833명), 혼인 귀화자(2,565명), 기타사유 국적취득자(495명), 외국인 주민자녀(6,369명) 등을 포함한 주민 수

2. 대상기관의 현황

〈표 4〉에 나타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대구 지역 다문화 유관 기관의 기본적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조사대상 다문화 유관 기관의 기본적 정보

번호	명칭	기관/단체의 성격	소재지	방문일시	피면담자
1	대구광역시청	광역 지자체(여성가족정책관 소속)	중구	2016. 4. 27 오후 1:00-2:00	팀장
2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지원, 구청 위탁운영(대학교 법인)	동구	2016. 4. 8 오후 3:00-4:00	팀장
3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지원, 구청 위탁운영(사회복지법인)	남구	2016. 4. 12 오후 1:30-2:00	담당자
4	대구외국인력지원센터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운영(경제/노동단체)	달서구	2016. 4. 29 오전 11:00-12:00	팀장
5	대구이주민선교센터	시민단체(개신교)	달성군	2016. 5. 3 오전 11:00-12:00	대표(목사)
6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시민단체(여성운동)	동구	2016. 4. 22 오전 09:50-11:00	대표
7	중앙도서관	도서관(교육청)	중구	2016. 4. 19 오전 10:30-11:40	담당자
8	북부도서관	도서관(교육청)	북구	2016. 4. 22 오전 11:20-12:00	계장
9	범어도서관	도서관(기초자치단체)	수성구	2016. 4. 15 오전 11:00-12:00	담당자
10	용학도서관	도서관(기초자치단체)	수성구	2016. 4. 8 오전 11:00-12:00	담당자
11	안심도서관	도서관(기초자치단체)	동구	2016. 4. 8 오후 1:30-2:00	담당자
12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	도서관(민간/사회복지법인)	남구	2016. 4. 12 오후 1:00-1:30	담당자

• 대구광역시청(다문화팀)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속 다문화팀은 팀장(사무관) 외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팀은 대구시의 다문화 정책 수립과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 지원, 그리고 대구광역시 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관리하고 다문화 관련 시민단체들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sup>2)</sup>

2009년 12월에 개소한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지원하고 동구청이 학교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부터 대구광역시 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의 거점센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06년 4월 남구청의 위탁을 받아 <대구남구결혼이민자지원센터>로 출발한 이 센터는 현재 여성가족부의 지원과 남구청의 위탁을 받은 한 사회복지법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사회복지법인은 같은 건물의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남구청으로부터 함께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건물에 있는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도 운영하고 있다.

- 대구외국인력지원센터

2008년 12월에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 공동체 행사를 담당해온 <대구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출발한 이 센터는 2010년부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위탁을 받아 한국노총과 대구경영자총협회에서 공동운영하고 있는데, 전국 8개 주요 도시에 동일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 센터는 대구와 경북지역의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를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과 권익보호, 상담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 대구이주민선교센터

2003년 대구 달서구 지역에서 개신교 목사 3명의 공동 사역으로 설립된 이주민을 위한 교회와 대구이주민선교센터가 2013년 서구 염색공단 인근에 설립된 대구베트남교회와 2014년 달성군에 설립된 이 센터(평화교회 포함)로 분화되었다. 현재 5층 건물 중 2층에 위치한 이 센터는 주중에는 커피숍, 주일에는 교회로 활용되고 있다. 커피숍 내에 작은 사무실을 두어 인근 공단의 이주노동자 상담, 인권보호, 문화사업, 선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 센터는 시민운동 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사업비는 대구광역시 등에서 지원받는다. 교회 신도는 대부분 중국, 네팔, 방글라데시, 태국, 필리핀 출신 이주노동자들이며, 매주 예배에는 평균 40~50 명이 참석한다. 담당 목사 외에 한국인 봉사자와 중국인 동포 봉사자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2008년 지역의 여성 인권 활동가들이 이주여성의 인권 향상과 사회적 성장, 주민의 다문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정부의 주도로 2007년부터 전국에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며, 대구의 경우에는 2007~2010년에 총 7곳이 설치되었다(이혜정 2015, 94-95).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의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행복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여성가족부)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 등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센터들은 다문화가족(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가족 및 자녀교육 상담, 통역과 번역 및 정보지원, 역량강화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2호)

화 인식 개선을 위해 이 단체를 설립하였다. 현재 이 단체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지부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나 대구광역시 등에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초기부터 이주여성의 자각과 이주여성 활동가 양성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미디어/경제/정치 등) 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주여성 상담소와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주여성의 중도입국 자녀의 공교육 진입을 위한 예비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의 운영은 대표 외에 기존 활동가와 이주여성 활동가들이 담당하고 있다.

### •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국제정보센터)

1919년 8월에 개관한 이 도서관은 대구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총 5층 건물(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0,181.4㎡)에 577,394권(2016년 5월 1일 현재)의 장서를 보유한 이 도서관의 1층에는 다국어 자료를 수집, 제공하는 국제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미국대사관을 통해 미국 관련 자료를 지원받는 아메리칸코너(2016년 4월 6일 현재 5,418권의 도서)와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다문화자료실(2016년 4월 6일 현재 중국, 일본 등 10개국 도서 7,194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정보센터에는 도서 외에 미국 DVD 2,246점과 중국 요녕성 도서관과의 교환을 통해 입수된 DVD 940점, CD-ROM 134점,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 등 외국 신문 3종과 외국 잡지 15종도 구비되어 있다. 국제정보센터에는 사서 1명과 보조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다.

### • 대구광역시립북부도서관

1983년 11월에 개관한 이 도서관은 대구교육청이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총 4층 건물(연면적 4,634㎡)에 242,589권(2016년 4월 1일 현재)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2층에 있는 종합자료실 공간 중 일부에 다문화자료 코너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영어자료 3,808권을 포함해 총 5,773권의 다국어 도서가 구비되어 있다. 종합자료실 담당 사서 1명이 다문화자료 코너도 함께 관리하고 있다.

### • 수성구립 범어도서관

2013년 7월에 개관한 이 도서관은 수성구가 설립하고 수성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총 6층 건물(연면적 6,904㎡)에 129,487권의 장서(2016년 4월말 현재)를 보유하고 있다. 2층의 국제자료실에는 2016년 1월 1일 현재 18개국 이상에서 출판된 21,950권의 다국어 도서(영어자료 18,570권 포함)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된 54종의 연속간행물, 그리고 공공도서관에서는 보기 힘든 외국 학술데이터베이스와 전문적인 영어 읽기 자료와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이 자료실에는 2명의 사서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 • 수성구립 용학도서관

2010년 9월에 개관한 이 도서관은 수성구가 설립하고 수성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총 6층 건물(연면적 4,516㎡)에 110,559권의 장서(2016년 4



월말 현재)를 보유하고 있다. 2층 어린이 자료실 공간 중 일부에 다국어 자료를 구비한 다누리 자료실이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7개 국어로 된 2,290권의 다국어 자료가 구비되어 있다. 어린이 자료실 운영을 담당하는 사서 1명이 다누리 자료실의 운영도 책임지고 있다.

- 동구립 안심도서관

2012년 4월에 개관한 이 도서관은 동구가 설립하고 동구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총 4층 건물(연면적 2,469㎡)에 70,805권의 장서(2016년 4월말 현재)를 보유하고 있다. 1층의 어린이 자료실 한편에 2013년 10월 다음세대재단이 설치한 올리볼리 다문화체험관이 설치되어 있다.<sup>3)</sup> 이 공간에는 다국어 그림동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다음세대재단이 제공한 그림동화 책들과 42인치 LED TV와 전용 컴퓨터 등이 구비되어 있다. 어린이 자료실 운영 사서들 중 1명이 올리볼리관의 운영도 담당하고 있다.

-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5호점, 대구)

이 도서관은 2010년 12월에 (주)STX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옛 봉덕3동 주민자치센터 3층 건물 중 2층(총 200㎡)을 리모델링하여 개관하였다. STX 해외법인과 지사에서 기증한 도서를 포함해 11개 언어 4,673권(2016년 4월말 현재)의 다문화/다국어 도서를 구비하고 있다. 이 도서관은 같은 건물 1층과 3층에 있는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sup>4)</sup> 도서관 담당직원은 2명 모두 사회복지사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와 함께 도서관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센터에서 근무하는 이중언어 가능한 이주여성 2명도 부분적으로 도서관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 Ⅲ. 다문화 관련 정보자원의 생산 활동

#### 1. 오프라인에서의 정보 생산

##### 가. 자료집, 소식지 및 홍보물

대구 지역의 다문화 유관 기관들은 <표 5>와 같이 자체 사업의 결과물, 교육용 자료집, 후원자 대상 소식지, 홍보물 등의 정보자원들을 생산하고 있었다. 먼저 생산 주체 측면에서는 다문화/다국어 자료의 수집과 조직, 보존, 제공 활동이 중심인 도서관보다는 다문화 관련 공적 기관과 시민단체들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정보를 생산하였으며, 도서관들은 다문화가족이

3) 다음세대재단의 펼치는 문화다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의 도서관과 학교, 다문화 관련 단체 등에 설치된 올리볼리관은 다음세대재단이 제공하는 LED TV와 전용 컴퓨터, 그리고 다문화 관련 그림동화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다문화 시대에 다양성 인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공간이다(다음세대재단 올리볼리관 홈페이지, <http://ollybolly.org>).

4)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두 센터 모두 대구의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포함된 독서감상문대회 수상작 모음집을 간행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다문화 자료실과 그 소장자료에 대한 홍보물을 생산하는데 그쳤으며, 일부 도서관들은 자료 생산이 전혀 없었다.

생산된 자료의 매체 형태를 살펴보면, 다문화 관련 사업계획이나 사업 결과물(보고서, 수기집, 자료집 등)을 책자로 생산하거나 기관과 단체의 사업내용 및 프로그램, 시설 등을 안내하거나 지역사회를 소개할 목적으로 리플렛과 소책자<sup>5)</sup>들을 생산하는 경우로 크게 구분할 수 있었다. 그 외에 이주여성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판매용 DVD 세트로 제작하거나 다문화가족의 사진엽서, 타블로이드 형태의 다문화가족 신문 등 특수한 형태들도 존재하였다.

생산된 자료의 언어적 측면에서는 대구시의 동화여행 책자와 생활안내 자료, 이주여성 경제 교육 자료집(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와 공동), 그리고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의 수기집과 홍보 리플렛, 중앙도서관과 범어도서관의 다문화자료실 홍보물 등은 한국어 외에 여러 이주민 모국어로 생산되었으며, 그 외 절반 이상의 자료들은 한국어로만 제작되었다.

〈표 5〉 조사대상 다문화 유관 기관의 주요 오프라인 정보 생산물 현황

기관/단체	자료명	주요 내용	특징	간행년	쪽수	형태
대구광역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대구광역시의 연간 다문화 관련 사업계획서	지역의 다문화 유관기관들과 정책협의 회의를 위해 제작 대외 배포는 하지 않음	매년	불명	책자
	생각이 함께 크는 동화여행	'다문화가정 사랑의 책보내기' 사업의 일환으로 동화를 활용한 한글교육과 북아트, 책놀이를 위한 시리즈 도서	매일신문과 공동 발간 대구거주 다문화가정에 배포 4개국어(한/영/중/베트남)	2013 2014 2015	219 303 223	책자
	대구 생활 가이드북	초기 입국자 대상 대구 소개, 체류안내, 생활정보 등	3개국어(영/중/베트남)	2015	65	책자
	다문화 희망 경제	이주여성 대상 경제생활의 기초 교육을 위한 자료집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와 공동 발간 4개국어(한/영/중/베트남)	불명	29	책자
	무지개세상	월간 다문화가족신문 고정 지면에 대구(1-2면)와 경북의 다문화 소식 게재	매일신문 발간(대구시/경북도/포스코/대구은행 등의 예산 지원, 대경지역 기관/단체/다문화가정 등에 배포)	2008-	12면	타블로이드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대구거점센터)	다린	반년간 소식지(현재 2호) 후원자 등 대상 사업보고	2007(추정)~2015년까지는 소식지를 연 1회(소책자) 발간	2015-	20면	책자
	행복을 만드는 시간	2014년 대구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진 공동체 프로그램 참가자 수기 및 사진	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동 발간(대구 거점센터 역할)	2015	48	책자
	다문화가족과 함께 행복을 꾸려 나갑니다	센터의 활동과 제공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	.	.	리플렛
	多함께 多행복하게	대구시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대구시 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개	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발간(대구 거점센터 역할)	2011	.	리플렛

5) 여기에서 리플렛(leaflet)은 단면, 양면 또는 이를 접어서 여러 면으로 제작된 각종 날장자료들을 의미하며, 소책자는 A5 미만의 크기로 리플렛이 여러 장 겹쳐진 형태의 자료를 의미한다. 책자는 리플렛과 소책자로 분류된 자료들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들로써, 페이지 수는 상관없이 A5 이상의 크기의 자료들을 의미한다.

대구지역 다문화 유관 기관의 아카이빙 활동 현황에 관한 연구 11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보고서	후원자 등 대상 사업 보고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의 연간보고 포함	매년-(2015)	(51)	책자
	통합서비스시범 운영기관	두 센터(모기관 동일)의 통합적 서비스, 프로그램 소개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모기관 동일) 소개 일부 포함	2012 (추정)	.	리플렛
대구외국인력지원센터	따뜻한 마음	후원자 대상 센터 소식지 상담/교육/활동 등을 보고	연 1-2회 발간되다가 2012년 통권 4호 이후 발간 중단	2010-2012	16번	책자
	대구외국인력지원센터	센터의 사업, 프로그램, 상담활동 등을 홍보	2년에 1회 제작(한국어)	.	.	리플렛
	대구외국인력지원센터	센터의 사업과 연락처를 기록한 명함형 홍보물	6개국어(한/영/중/베트남/인도네시아/우즈베크)	2016	.	명함형
대구이주민선교센터	이주민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후원자 대상 센터 소식지 지역활동과 인권/노동문제 상담, 센터활동, 재정 보고	초기 월간, 점차 2~4개월간, 이후 부정기 2013년(57호)부터 중단	2003 <sup>6)</sup> -2013	24면 내외	책자
	2014 이주민과 함께하는 추석축제	센터가 주최하는 추석 행사에 대한 홍보물	한-영, 한-중, 한-베트남 등 이중언어로 3종	2014	.	리플렛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국적을 넘어 사랑으로 만나는 가족	국제결혼 이주여성 친정 부모님 초청행사를 위한 여러 나라 이주여성의 수기 모음	(주)아진산업의 후원	2010	88	책자
	다문화 희망 경제	이주여성 대상 경제생활의 기초 교육을 위한 자료집	대구시와 공동 발간 4개국어(한/영/중/베트남)	불명	29	책자
	나의 음식 나의 이야기	센터 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소모임(씨엠)이 모국 음식과 삶에 대한 쓴 수기집	한국여성재단 다문화여성 커뮤니티 지원 사업 결과물 2개국어(한/베트남)	2013	71	책자
	카메라, 이주여성의 시선을 담다	센터 내 영상모임 소속 이주여성들이 직접 한국의 일상을 촬영한 영상(DVD)	판매용 제작	2011	2장 1세트	DVD
	주목할 만 한 사진관 엽서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의 사진을 공모하여 사진 엽서로 제작	한국여성재단,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추진한 사진공모 사업의 결과물	.	5장 1세트	사진 엽서
	우리동네 다문화공간	대구의 각 구와 인근 도시 다문화 기관/음식점/상점과 공공기관/병원 등을 안내	한국여성재단/우정사업본부의 후원 지역 지도 포함	불명	14	소책자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정폭력/위기상황에 처한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 소개	9개국어(한/영/중/베/태/필리핀/몽골/러시아/캄보디아)	.	2종류	리플렛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센터 활동과 부서, 시설 등에 대한 소개	부설 이주여성 상담소, 이주여성 쉼터 소개 포함	.	.	리플렛
중앙도서관	국제정보센터	국제정보센터의 장서와 프로그램 이용안내	3개국어(한/영/일) 최신성이 떨어져 배포 중단	2011	16	소책자
북부도서관	.	.	.	.	.	
범어도서관	국제자료실 100% 활용하기	국제자료실의 다국어장서, 프로그램, 이용방법 소개	4개국어(한/영/중/일)	.	.	리플렛
	범어도서관	장서, 시설, 프로그램 소개	2개국어(한/영) 2년에 1회 제작	.	.	리플렛
용학도서관	.	.	.	.	.	
안심도서관	.	.	.	.	.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	독서감상문대회 수상작	이 도서관이 주최하는 연 1회 독서감상문대회의 수상작들을 수록	2011년부터 매년 대회 실시 다문화가족/유치부/초등부/중·고등부/대학·일반부	불명	불명	불명

대표적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구시청은 매년 시의 다문화 사업계획서인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과 대구 지역 입국 초기자들을 위한 <대구 생활 가이드북>(3개 언어)을 생산하였으며, 대구 지역의 다문화 기관들과 언론사의 예산을 지원하여 그 결과물로 시리즈 형태의 도서, 교육용 자료집 등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대구시가 직접 생산하지는 않으나, 지역 언론이 발간하는 월간 다문화가족신문에 예산을 지원하고 매호마다 고정면을 확보하여 대구의 다문화 정책과 관련 행사, 기타 정보가 수록되도록 하였다.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반년간 소식지 <다린>과 센터의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 자료집들을 스프링 제본 형태로 생산하여 배포, 보관하고 있었다.<sup>7)</sup> 이 외에도 담당자에 의하면, 각종 사업보고서는 책자형태로 소규모만 발행하여 관련 기관과 후원자 등을 대상으로 발송하며, 비교적 큰 행사를 진행한 경우, 영상과 사진을 CD로 제작하여 자체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센터는 대구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거점센터 역할을 수행하며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기집이나 홍보 리플렛 등도 생산하고 있었다.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모기관이 같은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매년 사업보고서를 발간하여 위탁기관인 남구청, 지원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해 후원자와 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배포하였고, 홍보 리플렛도 공동으로 제작하였다. 하지만 이 외에는 직접 정보를 생산하기보다는 다문화가족 잡지 <Rainbow+>와 남구청 소식지, 모기관인 재단소식지 등에 투고를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대구외국인력지원센터는 위탁기관과 후원자 등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소식지를 연 1-2회 발간하다가 2012년 통권 4호를 끝으로 발간을 중단한 상태이며, 그 외 홍보 리플렛을 2년에 1회 정도 생산하고 있고, 6개 국어로 된 명함크기의 홍보물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발간하지는 않았으나 지역 케이블 TV 등에서 이 센터에 대해 촬영하여 방영한 영상물을 CD로 제작하여 내부 보관하고 있었다.

대구이주민선교센터는 설립 첫 해인 2003년부터 회원과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소식지를 매월 발간해왔으나 이후 재정과 인력의 한계로 불규칙하게 간행되다가 2013년 제57호를 끝으로 발간을 중단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예배를 위한 주보를 발간하였으나 발간의 부담으로 인해 현재는 PPT 파일을 만들어 빔프로젝터로 제공하고 있었다. 그 외에 센터 주최의 행사 홍보를 위한 다국어 홍보물을 생산하지만, 과거에 비해 정보생산 활동이 매우 위축된 상태였다.

6) 대구이주민선교센터 홈페이지(<http://www.mission4you.net/>)의 자료실의 98번 게시물 '2004년 1월 소식지'를 보면,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소식지(5)'가 2004년 1월 31일에 발간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센터의 창립(명칭 변경 이전)이 2003년이므로 창간호는 2003년경으로 추정된다.

7) 이 센터 사무실 입구에 있는 진열장에는 방문교육지도사 수시교육, 방문교육지도사 역량강화교육, 이민자 법교육,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결혼이주여성 취업지원프로그램, 소방안전 교육 등 이 센터에서 생산한 자료집들이 스프링 제본 형태로 제작되어 전시되어 있었다.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는 비교적 왕성한 정보생산 활동을 보여주었는데, 이 센터와 부설 센터와 상담소에 대한 홍보물 외에도 대구시, 한국여성재단, 기업체 등의 후원을 받아 수행한 사업의 결과물들을 책자, DVD, 사진엽서 등으로 다양하게 생산하고 있었다. 이 센터가 생산한 자료들의 특징은 이주여성들이 직접 생산한 자료들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었다.

#### 나. 공문 및 상담일지 등

조사대상 다문화 유관 기관들은 <표 6>과 같이 다문화 사업과 프로그램의 계획, 집행, 평가 과정에서 공문을 생산하였다. 대구시나 공공도서관(교육청, 자치단체(재단 위탁)) 등과 같이 정부기관에 속한 기관들은 각각의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다문화 관련 공문을 생산하고 있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sup>8)</sup>을 통해 시군구에 보내는 다문화 사업 결과 보고와 회계, 세무, 고객관리 업무에 관한 문서 등을 생산하였지만, 그 외 일반적 공문의 경우는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없이 워드 프로세서로 생산하고 있었다. 또한 대구외국인력지원센터와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등도 자체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없이 워드 프로세서 등을 이용하여 공문을 문서파일로 생산하였다.

조사대상 중 이주민 대상 상담을 수행하는 5개 기관들은 각각 상담 기록들을 생산하고 있었다. 피면담자들에 따르면, 상담일지는 관련 법률이나 규정<sup>9)</sup>에 따라 생산, 관리해야 하며 소송 등에서 참고로 활용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엄격한 통제하에서 생산, 유지되고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상담 예산을 지원한 기관에 보고해야 하므로 상담 통계도 생산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대구외국인력지원센터는 과거 워드 프로세서로 상담일지를 작성하였으나 현재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8개의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사용하는 전자 상담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상담일지를 생산하고 있었다. 반면, 대구여성인권센터와 대구이주민선교센터는 이주민 대상으로 법률, 의료, 소송, 노동, 가족 등에 대한 상담일지를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하고 있으며, 예산을 지원받은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상담관련 통계도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고 있다.<sup>10)</sup> 2곳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도 상담활동을 수행하면서 위와 마찬가지로 워드 프로세서를 활용해 세부적인 상담일지를 작성하는 한편, 별도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sup>11)</sup>의

8)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ww.w4c.go.kr/main/mainPage.do)의 주요 기능은 회계, 관리(임직원, 근태 등), 세무, 이력(생활자/이용자 입퇴소 등), 고객관리(후원자), 시군구보고(보고문서 및 보조금 신청/정산 등), 평가관리 등이며, 외부 공문 발송이나 상담관리 기능은 없었다.

9)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근로자고용지원업무처리규칙' 등에는 상담일지의 생산과 보존의 의무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10) 면담에 참여한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의 대표는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을 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 같은 곳에는 (상담기록용) 전용 프로그램이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만 배포되지 않는다. 다른 프로그램은 비싸다고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자신들은 문서파일로 상담일지를 생산한다고 밝혔다.

11) 2015년 1월에 출범한 여성가족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및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다.

<가족지원 통합시스템>을 통해 상담 실적과 상담 통계를 입력하고 있었다.

〈표 6〉 조사대상 다문화 유관 기관의 공문 및 상담일지 생산 방식

기관/단체	공문	상담일지
대구광역시	자체 전자문서시스템 사용	.
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업보고, 예산관리 등) 사용 워드 프로세서 활용	워드 프로세서 활용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가족지원통합시스템 활용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업보고, 예산관리 등) 사용 워드 프로세서 활용	워드 프로세서 활용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가족지원통합시스템 활용
대구외국인력지원센터	워드 프로세서 활용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전자상담 시스템 사용
대구이주민선교센터	워드 프로세서 활용	워드 프로세서 활용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워드 프로세서 활용	워드 프로세서 활용
중앙도서관	자체 전자문서시스템 사용	.
북부도서관	자체 전자문서시스템 사용	.
범어도서관	자체 전자문서시스템 사용	.
용학도서관	자체 전자문서시스템 사용	.
안심도서관	자체 전자문서시스템 사용	.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공문 생산	.

## 2. 온라인에서의 정보 생산

### 가. 홈페이지

조사대상 다문화 유관 기관들이 가상공간을 통해서 다문화 관련 정보자원을 어떻게 생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7>과 같이 12개 기관 모두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구시는 분야별 정보 중 여성 분야에 ‘다문화 지원’(지역 다문화 통계, 다문화 관련 기관 링크)과 ‘외국인주민 정보’(6개 국어로 된 생활안내 파일, 무료 의료기관 및 한국어 교육기관 소개 등) 등에 다문화 관련 정보를 게시하였으나 전담부서인 다문화팀 차원의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은 없었다. 그리고 영어/중국어/일본어/아라비아어 등 4개 국어 홈페이지와 한국어/영어로 된 블로그를 운영하고 매월 영어로 된 ‘e-News Letter’를 발간하고 있지만, 주로 사업, 관광, 홍보 등의 목적이며 지역 다문화 정보 제공의 용도는 아니었다. 그리고 4개 국어로 된 게시판을 운영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영어 이외의 외국어 게시판의 활성화 정도는 연간 5-6개 이하의 게시물이 전부일 정도로 낮았다.

2곳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통 포맷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다. 두 센터는 게시물 수의 차이는 약간 있으나 모두 자체 프로그램 모집이나 프로그램 활동내역에 대한 게시물이나 공지사항 등은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주민을 포함한 이용자가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센터

측이 글을 올리는 다국어 게시판은 두 센터 모두 게시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다.

대구외국인력지원센터는 홈페이지에 자체 프로그램 모집이나 프로그램 활동내역에 대한 게시물이나 공지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생산하였고, 특히 센터의 활동 사진과 영상 게시물이 다른 곳에 비해 많은 편이었으며, 외국인근로자 관련 법규나 정책, 뉴스 등에 관한 게시물과 월별 사업실적, 회의록 등 센터 운영자료 등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이 센터 내 상담팀의 활동을 온라인으로 확장하고자 외국인근로자와 그 고용주가 이용할 수 있는 비공개 상담기능도 제공되었다. 그리고 홈페이지 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등 6개 외국어 게시판과 일반적인 자유게시판 기능도 제공되었는데, 다만 각 게시판의 연간 게시물이 5건 미만으로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대구이주민선교센터의 홈페이지는 최근 정보생산은 활발하지 않았다. 이 센터는 2004년부터 자체 프로그램 모집이나 프로그램 활동내역에 대한 게시물이나 공지사항 등을 생산하였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연간 7-8개, 2015년부터는 연간 1-2개 수준으로 저조하였다. 또한 게시물 대부분이 이주민이나 지역주민의 참여보다는 소수의 활동가에 의한 생산되었으며, 상담/문답 게시판도 다문화 NGO들의 활동이나 이주민 채용 관련 정보들만 있을 뿐이었다.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 프로그램 모집이나 프로그램 활동내역에 대한 게시물이나 공지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센터 소개에 한정되었지만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웹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센터의 개별 프로그램 활동과 소모임 활동과 관련된 사진 자료와 센터 소식지(이미지), 그리고 일부나마 이주여성 관련 법규와 정책 관련 자료(파일) 등도 생산되고 있었다. 하지만, 홈페이지 게시물 대부분이 이주민이나 지역주민의 참여가 아닌 운영주체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주여성 소모임 게시판도 활동이 몇 년간 중지되었고 자유게시판과 회원게시판 역시 게시물이 거의 없거나 외부 광고들로 가득한 상태였다.

조사대상 5개 공공도서관들이 모두 다문화/다국어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에도 중앙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홈페이지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정보제공 메뉴가 없고 다국어 자료 리스트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내용을 거의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공지사항 등에 다문화 프로그램 게시물을 일부 포함하였고, 도서관 소개 중 시설과 장서 현황에 다문화 자료실 등의 위치와 면적, 다국어 장서 수 정도만 제공하고 있었는데, 안심도서관의 경우, 홈페이지 전체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었다. 이와 달리, 중앙도서관은 영어/중국어/일본어로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 소개를 제공하고 있었고, 도서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중 다문화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국제정보센터 이용안내 관련 게시물들이 지속적으로 작성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국제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별도로 제작하여 한국어 외에 3개 외국어로 운영하고, 아메리칸 코너/다문화자료실 소개와 10개국 다국어자료 목록(엑셀)의 게시, 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강좌 소개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반면에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는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용 공지사항과 프로그램 활동 내역 정도만 게시하고 있었으며, 도서관 소개와 이용안내 등 기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자료검색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다문화/다국어 자료 리스트도 제공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의 주요 메뉴인 추천도서 소개도 96%가 일반적인 한국 도서로, 대부분 다문화와 관련이 없었다.

나. SNS(Social Network Service)

<표 7>과 같이 5개 공공도서관을 제외한 다문화 유관 기관의 SNS를 통한 정보 생산은 대체로 활발하지 않았는데, 2곳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 등은 아예 SNS를 활용하지 않았고,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는 계정은 있으나 1년 이상 SNS 활동이 없었다. 대구시는 시 차원에서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한국어 외에 영어 계정도 운영하고 있었으나 주무부서인 다문화팀이 직접 SNS 계정을 운영하는 것은 없었다. 반면, 5개의 공공도서관들은 대체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안심도서관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그리고 블로그도 운영하였으며, 중앙도서관과 범어도서관도 페이스북과 트위터 또는 카카오톡 엘로아이디(카카오톡의 기업/기관용 비즈니스 서비스) 등 2개의 SNS를 통해 정보를 생산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SNS 게시물들은 주로 도서관 행사나 프로그램 소개와 참가자 모집에 관한 것이 위주였으며, 그 중 일부에 해당 도서관의 다문화 행사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었다. 그 중 중앙도서관은 트위터 계정에 한국어로 국제정보센터 활동에 대한 게시물을 타 도서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생산하고 있었다.

<표 7> 조사대상 다문화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온라인 정보 관리 현황 (2016. 5 현재)

명칭	홈페이지			다문화 관련 주요 정보	SNS			기타
	운영	적극성	다국어		운영	적극성	다국어	
대구 시청	○	○	○	· 다문화 통계 · 6개국어(영/중/일/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 생활안내(PDF파일) · 무료 의료/한국어 교육기관 링크	○(F/T)	○	○	· 4개 외국어 홈페이지와 영어 SNS 운영 · 다문화팀이 아닌 시 차원의 정보 관리 활동
동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	○	×	· 사업소개,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프로그램 활동 내역(사진) · 다문화/한국어 강사 채용공고(이주민 대상 포함) · 다문화 기관 링크	×	×	×	· 게시판 기능 없고, 다국어 게시판 글 없음. · 구글 번역기 링크 제공
남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	○	×	· 사업소개,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프로그램 활동 내역(사진) · 한국어 강사, 센터 직원 채용공고 · 다문화 기관 링크	×	×	×	· 게시판 기능 없고, 다국어 게시판 글 없음. · 구글 번역기 링크 제공
대구 외국인력 지원센터	○	○	○	· 사업소개,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상담(이주노동자/고용주 중 회원만) · 외국인근로자 관련 법규/정책/소식 · 경영공시(월별사업실적, 회의록 등) · 프로그램 활동 내역(사진/영상)	○(F)	○	×	· 홈페이지 내 게시판을 5개 국어로 제공하나 비 활성화



대구 이주민 선교센터	○	×	×	· 사업소개,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외국인근로자 채용 정보 · 자유게시판과 상담/문답(소수 활동가의 센터 사업 보고, 종교활동 게시물, 다문화 NGO 활동 게시물 위주) · 프로그램 및 종교활동 내역(사진)과 소식지 · 다문화 기관 링크	×	×	×	· 홈페이지 전체 비활성화 · 소수 활동가가 대부분의 게시 물 작성 · 상담기능의 유명무실화
대구 이주 여성 인권센터	○	○	○	· 사업소개,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이주여성 관련 법규와 정책 자료 · 프로그램 활동 내역(사진)과 소식지 · 이주여성소모임 게시판(비활성화) · 다문화 기관 소개 및 링크	○ (F/ T)	×	×	· 센터 소개 정보를 중국어/베트남어 제공 · 매달 소식지 메일 발송 · 페이스북 3년 이상 글 없고, 트위터 2016년 글 1개
중앙 도서관	○	○	○	· 홈페이지 공지사항 중 다문화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국제정보센터 이용안내 게시물 · 국제정보센터 홈페이지 별도 운영(아메리칸 코너 /다문화자료실 소개, 10개국 다국어자료 목록 (엑셀) 게시, 센터 이용 및 프로그램/강좌 소개)	○ (F/ T)	○	×	· 도서관/국제정보센터 각각의 홈페이지에 영어/중국어/일본어로 소개 정보 제공
북부 도서관	○	○	×	· 일반적 도서관 홈페이지 콘텐츠 · 홈페이지 공지사항 중 다문화 프로그램 참가자 및 강사 모집 게시물	○ (T)	△	×	· SNS에 다문화 행사소개 일부 포함 · 다국어자료 리스트 제공 없음
범어 도서관	○	○	×	· 일반적 도서관 홈페이지 콘텐츠 · 공지사항 중 다문화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국제 자료실 이용안내 게시물	○ (F/ C)	○	×	· SNS 게시물은 다문화와 무관 (영화상영/독서 프로그램/강연 등) · 다국어자료 리스트 제공 없음
용화 도서관	○	○	×	· 일반적 도서관 홈페이지 콘텐츠 · 공지사항 중 다문화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다문 화자료실 이용안내 게시물	○ (C)	×	×	· SNS에 다문화 행사소개 일부 포함 · 다국어자료 리스트 제공 없음
안심 도서관	○	○	○	· 일반적 도서관 홈페이지 콘텐츠 · 홈페이지 내 올리블리 다문화체험관 소개 및 공 지사항 중 다문화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게시물	○ (F/ T/ YT)	○	×	· 블로그도 별도 운영 · SNS와 블로그에 다문화 행사 소개 일부 포함 · 전체 홈페이지를 영어로 제공 · 다국어자료 리스트 제공 없음
다문화 어린이 도서관 모두	○	△	×	· 사업소개,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프로그램 활동 내역(사진) · 추천도서(50권 중 2권만 외국서)	×	×	×	· 소개/이용안내 정보 없음 · 게시판 비 활성화 · 다국어자료 리스트 제공 없음

(F: 페이스북, T: 트위터, C: 카카오톡 Yellow Page, YT: 유튜브)

#### IV. 다문화 관련 정보자원의 수집 활동

##### 1. 외부에서 발송한 자료

조사대상 중에서 도서관을 제외한 다문화 기관들은 양의 차이는 있으나 <표 8>과 같이 외부에서 발송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대체로 외부의 다문화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한다기보다는 외부에서 자료를 보내오면 비치하여 배포하다가 남은 자료는 서거나 창고 등에 쌓아두는 소극적 수집활동을 보였다. 이는 공공도서관들이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다문화/다국어 자료들을 선정하여 구입하는 적극적 수집활동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들이 수집한 자료들을 제작 주체별로 구분하면,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다문화 정책

〈표 8〉 조사대상 다문화 유관 기관이 수집하고 있는 주요 자료 현황

	제작 주체	자료명	다국어	책자
정부 부처	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	Rainbow+ (다문화가족 대상 잡지)	○	○
	여성가족부	한국생활 가이드북	○	○
	여성가족부	통번역 전담인력을 위한 전문용어 소사전	○	○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주여성 인권 관련)	○	×
	여성가족부/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레인보우스쿨로 한국어 배우러 가자	○	×
	노동부	이주노동자를 위한 하하호호 한국어	○	○
	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안전작업 길잡이	○	○
	법무부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표준교재	×	○
	법무부/한국이민재단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조기적응 프로그램 안내	×	×
	법무부/한국이민재단	외국인(동포포함) 육아도우미 전문교육과정	×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프로그램 다국어 안내	○	×
	보건복지부/인구보건복지협회	아가사랑 (임신, 출산, 육아 관련)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문화가족을 위한 선거이야기	○	×
공공 기관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	○
	국민건강보험	다국어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전자상거래 - 통신판매	○	×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고용정보원 등	고용허가제 App 설명서	○	×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고용허가제 귀국지원 서비스 안내	×	×
	한국산업인력공단/삼성화재/대한건설협회 외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안내서	×	×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근로자 통역서비스 및 고충상담	○	×
	한국산업인력공단	(○○업) 근로자 취업 길라잡이	○	○
자치 단체	안전보건공단	보호구의 종류와 사용법	○	○
	대한법률구조공단/KB국민은행	외국인 법률문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돕겠습니다.	×	×
민간/ 기타	대구광역시	대구 생활안내	○	○
	달서구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물	○	×
민간/ 기타	매일신문 (대구시/경상북도/포스코/대구은행 후원)	무지개세상 (대구경북지역 다문화 월간 신문)	×	×
	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다함께 다행복하게	×	×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자신만만 - 이주여성 당사자 활동가 매뉴얼	×	○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을 위한 위기대응 노트	×	○
	한미교육위원단	Camp Fulbright	×	×

과 관련된 정부부처에서 생산한 자료가 가장 많이 수집되고 있었다.<sup>12)</sup> 다문화에 관계된 공공 기관들도 자체적으로 또는 유관 정부부처와 공동으로 다양한 자료들을 배포하였다.<sup>13)</sup> 반면에 대구시와 각 구에서 제작한 자료는 생활안내 자료 외에는 거의 수집되지 않았는데, 이는 여러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직접 자료를 제작, 배포하는 상황에서 지역 안내 외에는 지자체가

12) 이들 부처에서는 대구시를 비롯한 각 지역의 다문화 관련 기관에 자신들의 자료를 택배 등을 이용해 직접 발송하고 있었다. 면담에 참여한 대구시 담당자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들이 생산하는 자료는 대구시를 거쳐서 배포되지 않고 직접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배포하고 있다.”라고 하였고, 대구이주여성센터의 대표도 “노동부나 여성가족부, 시청, 구청 같은 곳에서 여러 나라 말로 된 자료들을 보내오는데, 주로 택배로 받았다.”고 언급하였다.

13) 면담에 참여한 대구외국인력지원센터 담당자는 “우리 센터에는 산업인력공단에서 들어오는 자료가 대부분이다. 대구시에는 약간 보내고 구청에서는 거의 보내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자료를 제작할 필요가 특별히 없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표 5>에 나타난 지역의 다문화 유관기관들이 생산한 홍보물과 책자형 자료들은 서로 간에 거의 수집되지 않았는데, 이는 지역 내 다문화유관기관들의 지역 다문화 관련 정보수집이 원활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외부 자료들의 언어적 측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다국어로 제작되었고, 형태적 측면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정책이나 프로그램 홍보용 리플렛이었으나 일부는 다문화 정책, 제도, 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책자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외부에서 발송한 자료의 수집과 관련해 조사대상 다문화 기관들이 위탁기관이나 지원기관에서 생산된 자료들을 비교적 활발하게 수집하고 있었는데, 이는 지원 기관들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예를 들어, 대구외국인력지원센터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위탁을 받고 있어 다른 조사대상들과 달리 이들 기관에서 생산한 자료들을 종류와 수량에서 풍부하게 수집하고 있었으며, 교육용 교재도 이들 기관에서 생산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의 경우,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지부 역할과 더불어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레인보우스쿨(여성가족부), 이민자 조기적응지원센터(법무부) 등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 관련 정부부처와 시민단체의 자료들을 다른 조사대상들에 비해 광범하게 보유하고 있었다. 미국대사관이 지정한 아메리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중앙도서관도 다른 기관에서는 없는 미국 정부기관의 홍보물들을 구비하여 배포하고 있었다.

## 2. 다문화/다국어 도서

조사대상 도서관들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이 생산한 다문화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지 않고 있었는데, 많은 도서관 담당자들은 면담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도서관의 수집 대상으로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거나 이들 자료가 “있는지를 몰랐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이들은 대체로 다양한 이주민 모국어로 된 다문화/다국어 도서들을 수집하고 있었는데, 안심도서관을 제외한 도서관들은 다국어 도서 서적상을 통해 구입하고 있었다. 그 외의 입수방법으로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제작한 다국어 동화의 기증(중앙, 북부, 범어, 용학, 모두 등), 기업체나 기업체의 해외지사(안심, 모두)을 통한 기증, 대사관을 통한 기증(중앙), 시민들의 기증(중앙, 범어), 외국의 자매결연 도서관과의 교환(중앙, 범어) 등의 방법을 통해 입수되었다. 특히, 중앙도서관은 2003년 10월 31일 중국 요녕성 도서관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단행본과 DVD를 교환하고 있으며, 2004년 3월 19일 아메리칸센터 개소 이후 미국대사관에서 영어 도서와 DVD 등을 기증받고 있었다. 범어도서관도 시민들의 외국자료 기증과 함께 2013년 구청의 자매결연 도시(일본, 중국, 호주 등)와 총 70-80권 규모의 자료교환을 수행한 바 있다. 조사대상 도서관의 다문화/다국어 도서 소장 현황을 살펴보면 <표 9>와 같다.<sup>14)</sup>

<표 9> 조사대상 도서관의 다문화/다국어 도서 소장 현황

도서관명	소계 (영어 포함)	중국어	일본	태국	필리핀	베트남	우즈벡	캄보디아	몽골	인도네시아	기타 국가	영어
중앙도서관	7,194 (12,612)	4,526	1,092	297	224	454	·	136	90	322	53 (멕시코 등)	5,418
북부도서관	1,965 (5,773)	470	499	97	187	311	81	51	108	161	·	3,808
범어도서관	3,380 (21,950)	751	379	231	301	293	221	245	206	·	753(프/독/러/ 이탈 등)	18,570
용학도서관	2,290	613	236	202	350	400	195	294	·	·	·	·
안심도서관	97 (3,410)	·	·	13	20	16	5	9	15	5	14 (티벳, 이란 등)	3,313
다문화어린이 도서관 모두	3,907 (4,673)	1,160	564	141	228	920	·	31	66	400	397 (인도, 러시아)	766
합계	18,833 (48,418)	7,520	2,770	981	1,310	2,394	502	766	485	888	1,217	31,875

이 다문화/다국어 도서들을 언어 측면에서 살펴보면, 영어를 제외하면 중국어가 가장 많고, 이어 일본,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벡, 몽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도서들을 매체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부분 단행본 도서 위주였고, DVD/CD-ROM과 신문/잡지 등 연속간행물, 다국어 사전, e-Book 등이 일부 소장되어 있었다. 중앙도서관 국제자료센터의 경우, 중국어와 일본어 연속간행물 5종, 영어 연속간행물 13종, 13개 언어 사전, 3천개가 넘는 중국과 미국의 DVD/CD-ROM 등을 소장하였고, 범어도서관도 영어 중심이지만 일본어와 중국어를 포함한 연속간행물 54종과 아시아와 유럽의 언어들을 포함하는 다국어 사전 등을 소장하고 있었다. 안심도서관의 경우, 다음세대재단이 기증한 올리볼리관을 통해 아시아 여러 국가의 전래동화의 애니메이션 e-book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도서관 외에 조사대상 다문화 기관 중에서 자체적으로 서가 등을 갖추고 이주민 모국어로 된 다문화/다국어 도서를 구비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내역은 <표 10>과 같다. 이 기관들은 위의 도서관들과 달리 다문화/다국어 도서의 수집이 주요 목적은 아니지만, 센터 운영과정에서 부수적 용도(작은공부방 설치, 휴게실 이용시, 이주여성 자녀의 대기시 이용 등)로 이 도서들을 수집, 보관하고 있었다. 이 기관들이 수집한 다문화/다국어 도서의 대부분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대사관, 시민단체, 이주민 등이 기증한 것이고, 그 수는 몇 백권 수준이었다.

14) 각 도서관별 자료 수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중앙도서관(담당자 제공 자료, 2016. 4. 6 기준), 북부도서관(담당자 제공 자료, 2016. 4. 22 기준), 범어도서관(자체 브로셔, 2016. 1. 1 기준), 용학도서관(담당자 제공 자료, 2016. 5. 19 기준), 안심도서관(담당자 제공 자료, 2016. 5. 20 기준),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담당자 제공 자료, 2016. 5. 20 기준) 등.

<표 10> 조사대상 다문화 유관 기관(도서관 제외)의 다문화/다국어 자료 소장 현황

기관명	보유하고 있는 다문화/다국어 도서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sup>15)</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 내 작은공부방에 총 4,000여권의 도서(대부분은 한국어 도서)를 보유</li> <li>· 2011년 6월 10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문화가족을 위한 공부방 겸 작은도서관 “건강보험 ZONE” 설치시 기증 도서와 사회공헌기금으로 구입 도서 : 3천여권 정도</li> <li>·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어 도서 기증</li> <li>·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발간한 다국어 동화(이중/다중언어)</li> <li>·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영어 등 이주민 모국어 도서 포함</li> </ul>
대구 외국인력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게실 공간 벽면에 서가를 설치하여 국가별로 분류</li> <li>· 대부분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다국어 책자(배포용)</li> <li>· 그 중 일부에 외국인 근로자, 자원봉사자, 대사관(태국, 우즈벡 등),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유니세프 등이 기증한 다문화/다국어 도서 포함(1-200권 정도 추정)</li> </ul>
대구 이주여성 인권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 교육장의 벽면에 서가를 설치하여 약 5-600여권(추정)의 도서를 보유</li> <li>· 결혼이주여성들이 교육받는 동안 그 자녀들이 이용하도록 구비</li> <li>· 다문화/다국어 도서는 아름다운재단이 기증, 한국어 도서는 여러 곳에서 기증</li> </ul>

### 3. 박물관자료

조사대상 다문화 기관들의 수집 자료 중에는 도서관이 전통적으로 수집해온 단행본 도서나 연속간행물 등과 다른 박물관자료 또는 인공물(artifact) 자료가 존재하였다. 이 박물관자료들은 다문화 유관 기관들이 활동과정에서 필요하여 국내외에서 구입하거나 프로그램에 참가한 이주민들이 기증한 것으로, 대부분 이주민 모국의 의복, 상징물(국기 등), 악기, 기타 소품 등이었다. 박물관자료의 용도는 대체로 전시 목적이었고, 그 외 이주여성들이 다문화강사로 활동할 때 강의용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1곳 정도를 제외하면 조사대상들이 보유한 박물관자료의 수는 많지 않은 편이었다. 조사대상이 보유한 박물관자료의 현황은 <표 11>과 같다.

<표 11> 조사대상 다문화 유관 기관의 박물관자료 소장 현황

기관/단체명	보유하고 있는 박물관자료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의상(아오자이, 바봉, 기모노 등)과 중국 면검 등을 센터 입구에 전시</li> <li>· 박물관자료의 수는 많지 않으며, 구입해서 사용</li> <li>· 일부는 전시하고, 나머지는 자체 보관하다가 전시, 행사 때 사용</li> </ul>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의상을 약 30벌 정도를 창고에 보관</li> <li>·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와 공동으로 활용</li> </ul>
대구이주민선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에 활용하고자 각국 국기, 중국 의상 몇 벌, 중국 사자탈 등 일부 구입</li> <li>· 현재 다른 건물에 위치한 이주노동자 쉼터의 창고에 보관</li> </ul>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당히 많은 양(최소 50개 이상)과 다양한 유형의 박물관자료를 보유</li> <li>· 각국 의상, 모자, 국기, 악기, 인형, 기념품(카페트, 조각, 죽간, 변검) 등</li> <li>· 이주여성들이 기증하거나 센터 담당자가 회의차 외국에 갔을 때 구입</li> <li>· 이주여성이 다문화강사 활동시 활용 및 자체/외부 행사 등에서 전시</li> <li>· 일부는 전시하고 있고, 일부는 창고의 상자 속에 보관</li> </ul>
중앙도서관(국제자료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메리칸센터로 지정되어 미국 관련 박물관자료가 다수</li> <li>· 미국 국기, 미국 지도, 기타 미국 관련 장식물과 그 외 만국기 등</li> </ul>
범어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청과 자매결연한 외국 도시의 기념품들을 도서관 국제자료실에 보관</li> <li>· 호주 원주민 악기(디주리두), 중국 장식품, 인도 인형 등 3-4개 정도</li> </ul>
용학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 인형 4종을 다누리자료실에 보관</li> </ul>
다문화어린이도서관모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각국의 전통의상 30벌 정도 보관</li> <li>· 각국의 전통의상 5벌(아오자이 등)과 세계 각국의 국기 등을 전시</li> </ul>

15) 메디포뉴스 기사(<http://medifonews.mediaon.co.kr/news/article.html?no=74764>)와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2015년 11월 5일자 페이스북 게시물 참조.

## V. 다문화 관련 정보자원의 관리 활동

### 1. 공문서와 상담일지 관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사대상 중 시청과 공공도서관 등의 공적기관들은 각각의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전자공문을 생산하여 체계적인 공문의 생산, 처리, 보존이 가능하였다. 반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시군구 등에 보고하는 공문을 제외한 외부에 발송하는 공문은 별도의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없이 워드 프로세서 등으로 작성하고 엑셀로 된 대장에 등록한 후 메일, 우편,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였으며, 발송된 공문들은 편철하여 캐비닛에 보관하다가 보존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외국인력지원센터도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없이 담당자 업무별로 문서파일을 생산하여 개별 보관하거나 공유폴더를 통해 관리하고 있었다. 이 문서들은 문서 대장에 등록하고 편철하여 내부 참고 겸 문서고에 보관하였다가 보존기간이 종료되면 폐기하고 있었다. 발송은 주로 메일을 사용하며 일부 팩스를 이용하였다.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도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없이 담당자의 사업별로 한글 문서파일로 공문을 생산하여 담당자 컴퓨터에서 개별 보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외장하드로 백업하고 있다. 생산한 문서들은 문서 대장에 등록하고 편철하여 사무실 내 참고에 보관하고 있다. 공문 발송은 주로 팩스를 활용하고 있다.

조사대상 중 상담 기능을 수행하는 5개 다문화 유관 기관들은 처한 환경에 따라 일부는 위탁기관에 제공하는 전자 상담 시스템을 통해 상담일지와 상담통계를 전자적으로 생산, 관리하는 반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과 시민단체들은 상담일지를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해 작성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대구외국인력지원센터는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전자 상담 시스템을 활용해 상담일지의 생산과 통계 등을 관리하고 있었다. 대구여성인권센터는 문서파일로 상담일지와 상담일지 대장을 작성하고 출력 후 편철하여 사무실 내 참고 등에서 일정기간 보존하였다. 그리고 상담 관련 예산을 지원받은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상담관련 통계도 문서파일로 작성하여 발송한 후 출력하여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대구이주민선교센터도 이와 마찬가지로 상담일지를 문서파일로 작성하고 출력하여 대장에 등록한 후 편철하여 일정기간 사무실 내 공간에 보관하였으며, 상담 통계를 작성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대구시에 매월 보고하고 있었다. 2곳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의 경우, 상담일지는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고 상담실적과 통계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가족지원 통합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었다.

## 2. 다문화/다국어 도서 관리

<표 9>와 같이 조사대상 중 6개의 도서관은 다문화/다국어 도서를 보유하고 있고, <표 10>과 같이 도서관 외의 다문화 유관 기관 중 3곳도 적으나 다문화/다국어 도서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소장한 다문화/다국어 도서들에 대한 관리 현황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조사대상 다문화 유관 기관의 다문화/다국어 도서 관리 현황

기관/단체명	전자도서관 시스템	도서 대장	대출/반납 처리	목록 구축	다국어 목록	장비 작업 (바코드/라벨)	다국어 도서 목록 (파일) 제공
중앙도서관	○	○ (전산)	○ (전산)	○	○	○ (일반 도서관 방식)	○ (10개국 언어)
북부도서관	○	○ (전산)	○ (전산)	○	○	○ (일반 도서관 방식)	X
범어도서관	○	○ (전산)	○ (전산)	○	○	○ (일반 도서관 방식)	X
용학도서관	○	○ (전산)	○ (전산)	○	○	○ (일반 도서관 방식)	X
안심도서관	○	○ (전산)	X	X	X	X (다국어 도서 표식용 색띠 부착)	X
다문화어린이 도서관 모두	○	○ (전산)	○ (전산)	○	X	○ (일반 도서관 방식)	X
동구다문화 가족지원센터	X	○ (장부)	○ (장부)	X	X	X (일부 대분류 라벨 부착)	X
대구외국인력 지원센터	X	X	X	X	X	X	X
대구이주여성 인권센터	X	○ (장부)	X	○(워드 프로세서)	○(원어+번역)	○ (언어+일련번호)	X

이들 중 중앙도서관, 북부도서관, 범어도서관, 용학도서관 등은 다국어가 지원되는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일반적인 도서관의 관리 방식에 따라 다문화/다국어 도서의 등록, 대출/반납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였으며, 자료색출과 대출/반납을 위한 레이블과 바코드도 부착하고 있었다. 이 도서관들은 대체로 업체가 제공하는 서지데이터를 기초로 다국어 목록을 구축하였으나 중앙도서관은 구글에서 ISBN 검색으로 얻은 서지정보나 도서 내 CIP 정보를 토대로 자체적인 목록 입력도 병행하였으며, 국제자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다문화/다국어 도서의 목록(10개 국어) 파일을 제공하였다. 반면,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는 담당자 PC 1대에만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설치하여 다문화/다국어 도서의 등록과 목록을 실시하고 레이블과 바코드를 부착하였다. 하지만 시스템 상 다국어 목록 입력이 가능함에도 목록은 한국어로만 입력하고 있었다.<sup>16)</sup> 안심도서관은 다문화/다국어 도서의 목록을 구축하지 않았고 대출을 하지 않아 레이블과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았으나 다국어 도서임을 표시하는 색띠를 부착하였다.

도서관 외의 다문화/다국어 도서를 보유한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자도서관 시스템

16)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목록 검색이 되지 않았고, 도서관 내부에 이용자가 목록을 검색할 수 있는 PC도 제공되지 않아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적어주면 직원이 업무용 PC에서 검색하여 찾아주었다.

을 보유하지 않았고 목록도 구축하지 않았으며, 도서등록대장은 문서파일로 작성하였고, 대출/반납 대장은 장부에 수기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일부 다문화/다국어 도서의 책등에는 문학/철학종교/역사/유아/교육/자연과학 등 주제분류용 색띠를 부착하였고, 책 표지에 바코드 없이 센터명과 도서등록번호(알파벳+숫자)를 부착하였다. 대구외국인력지원센터도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보유하지 않았고, 목록 구축을 하지 않았으며, 도서등록대장과 대출/반납대장, 레이블과 바코드 등도 없었다.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역시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회원인 결혼이주여성들이 문서파일을 이용해 도서등록대장을 작성하고 다문화/다국어 도서의 원어와 한국어 번역으로 입력한 대강의 목록을 구축하고 책등에 언어명과 일련번호로 된 레이블을 부착하였다. 하지만 대출/반납을 하지 않아 관련 대장은 없었다.

### 3. 기타 다문화 관련 자료 관리

#### 가. 외부 발간 자료

조사대상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곳과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외국인력지원센터 등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배포대를 설치하고 외부에서 온 다문화 관련 자료 중 홍보 리플렛을 자체 생산한 홍보 자료들과 함께 비치하였다. 반면, 홍보 리플렛 외의 외부 자료들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전체적으로 체계적 관리에 부족한 실정이었다.

먼저, 피면담자들 중 도서관 담당자들은 거의 모두 지역 다문화 유관 기관의 자료를 도서관의 장서로 고려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실제 <대구지역 공공도서관 통합검색>에서 조사대상인 중앙/북부/범어/용학도서관을 포함한 20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표 5> 중 지역 다문화 기관들이 생산한 책자 11종의 소장여부를 확인한 결과, 성서도서관이 <생각이 함께 크는 동화여행> 1권만을 소장했을 뿐이었다. 지역 다문화 기관들이 도서관에 먼저 자료를 배포하지 않았음을 고려하더라도 지역 정보센터이자 다문화/다국어자료를 소장 중인 공공도서관들이 지역 내 다문화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인식이 낮았고 수집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 외의 조사대상 기관들도 외부 자료 관리에 소홀하였는데, 피면담자들은 “자료는 팀이나 자기 사업별로 관리하는 편이다.”(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라거나 “외부기관에서 자료가 오면 사업팀별로 필요한 자료를 보관한다. 자료실에 따로 보관하지 않는다.”(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이 외부 자료를 조직 내에서 공동 관리와 이용하지 않고 사업팀이나 개인 차원에서 이용하였다. 그리고 “다른 책이나 자료집에 대해 목록 작성을 하거나 관리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큰 숙제라고 생각한다. 체계적 정보 관리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자료관리 필요성은 느끼는데 인력의 한계로 거의 못하고 있다.”(대구이주민선교센터), “외부에서 온 자료는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서가에 둔다.”(대구외국인력지원센터) 등과 같이 인력의 한계 등으로 외부의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



는 모습도 있었다. 또한 유관 기관들의 다문화 공모사업에 예산을 지원한 후 공문과 함께 생산된 다문화 관련 자료를 접수하는 대구시청 다문화팀의 경우,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만, 생산된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사후 활용 문제는 주요 관심사가 되지 못하고 있었다.

#### 나. 박물관자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사대상 중 일부는 박물관자료를 보유하면서 다문화 강의나 기관 내외의 전시에 활용하고 있었는데, 박물관자료를 단지 몇 점만을 보유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문화 유관기관들을 살펴본 결과, 박물관자료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사대상 중 비교적 많은 박물관자료를 가진 대구여성인권센터는 사무실과 교육장 2개 층 곳곳에 각국 의상, 모자, 국기, 악기, 인형, 카페트 등을 전시하고 있었지만 별도의 박물관자료 목록이나 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지 않았고, 나머지 박물관자료들은 상자에 담아 사무실의 창고 안에서 보관하는 수준이었다. 대구이주민선교센터도 보유한 박물관자료들을 별도의 대장 등을 만들지 않고 다른 곳에 위치한 이주노동자 센터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도 이들과 유사하게 마네킹에 입혀 전시하고 있는 5벌 의상 외의 나머지 의상들을 사무실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 Ⅵ. 다문화 관련 아카이빙 활동의 특징

이상에서 대구지역 12개 다문화 유관 기관의 정보 관리, 정보 수집, 정보 관리 등 아카이빙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다문화 유관 기관들이 보여준 아카이빙 활동의 특징적인 측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프라인 정보 관리와 관련하여 도서관들에 비해 다른 다문화 유관 기관들이 다양한 오프라인 자료들을 생산하고 있었지만 소식지 발간 등에 있어 불규칙하게 발간되거나 간행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배포 범위도 보고 기관과 후원자, 봉사자 등에 한정되었다. 공문과 상담일지 생산과 관련해 공공기관들은 자체적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이 있으나 그 외의 위탁 센터들과 시민단체들은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없는 상태에서 공문을 워드 프로세서를 활용하여 생산하였고, 일부 기관의 상담일지도 동일하게 생산되었다.

둘째, 온라인 정보 관리와 관련해 조사대상 모두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운영주체와 이용자 모두에서 게시물을 통한 정보 관리가 활발하지 않았다. 다국어와 관련해서도 절반 이하에서만 다국어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다국어 게시판에 게시물이 없거나 수가 부족하였다. 중앙도서관 외의 도서관들도 다문화에 대한 내용을 거의 포함하지 않았다. SNS의 경우, 공공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SNS는 대체로 비활성화되어 있었고, 도서관의 SNS

는 주로 행사나 프로그램 홍보용으로 다문화 관련 내용은 한정적이었다.

셋째, 외부자료 수집과 관련해 도서관을 제외한 다문화 유관 기관들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외부에서 발송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특히 해당 기관과 관계가 깊은 위탁기관이나 지원기관의 자료들은 상대적으로 더 풍부하게 수집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역 내 다문화 유관기관들이 생산한 자료들은 상호간 거의 수집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도서관들은 다양한 이주민 모국어로 된 다문화/다국어 도서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었는데, 대체로 서적상을 통한 구입이 위주였고 그 외 국립도서관, 기업체, 대사관, 개인 등의 기증과 자매결연 도서관 등을 통한 교환도 활용되었다. 도서관 외에 일부 다문화 기관도 다문화/다국어 도서를 구비한 경우가 있었으나 주로 기증에 의한 것으로 적은 수량에 그쳤다. 외부자료 중 박물관 자료를 보유한 기관들도 있었으나 1곳 정도를 제외하면 그 수는 많지 않았다.

넷째, 정보 관리와 관련해 시청과 공공도서관 등의 공공기관들은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공문 관리를 하였으나 나머지 기관들은 문서파일로 공문을 작성하고 메일, 팩스로 발송하는 등 공문의 생산, 유통, 보존, 보안, 관리 등에 한계를 보였다. 5곳의 다문화 기관에서 상담일지를 작성하였는데, 전자 상담시스템의 활용보다는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는 기관이 더 많았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은 상담 통계를 위해 별도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다문화/다국어 도서의 관리에 있어 다수의 도서관들은 다국어 지원되는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통해 다국어 목록을 생성하는 등 안정적으로 도서를 관리하였으나 일부 도서관은 목록 구축을 하지 않거나 다국어 목록을 제공하지 않았고, 다국어 도서를 보유한 일부 다문화 기관들은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보유하지 않아 체계적인 도서 관리에 한계를 보였다.

다섯째, 외부 발간 자료 중 홍보 리플렛 외의 외부 자료 관리에 있어 전체적으로 체계적 관리에 부족하였다. 특히, 도서관은 지역 다문화 유관 기관의 자료를 도서관의 장서로 인식하지 못했고, 그 결과 지역 내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거의 소장하지 않았다. 도서관 외의 조사대상 기관들도 외부 자료 관리에 있어 공동 관리보다는 개별적 이용에 그치거나 사실상 관리를 하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조사대상 다문화 기관들은 다문화 관련 박물관 자료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목록이나 대장 없이 일부는 전시하고 나머지는 창고에 보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V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 유관 기관들이 다문화 관련 정보자원의 생산, 수집, 관리를 포괄하는 아카이빙 활동을 살펴보고자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정부와 지자체의 위탁을 받

은 다문화 기관, 다문화 시민운동 단체, 그리고 다문화/다국어 자료를 구비한 공공도서관 등 총 12개 기관을 사례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다문화 사회의 진전 상황에서 지역의 다문화 유관 기관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다문화 관련 정보들을 생산하고 있었고, 특히 도서관 외의 다문화 기관들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외부 발간 자료의 수집을, 도서관들은 다문화/다국어 도서와 DVD 등에 대한 수집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이들은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또는 문서파일 작성 방식으로 공문과 상담일지를 관리하고, 전자도서관 시스템 또는 수기 방식으로 다문화/다국어 도서를 관리하고자 힘을 기울였다. 하지만 조사대상 다문화 유관 기관들의 아카이빙 활동과정에서 한계점들도 드러났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기관들은 다문화 정보 아카이빙의 주체라는 인식으로 가지고 기관 내부에서부터 정보 생산, 정보 수집, 정보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간행물 발간의 중요성과 책임성을 인식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발간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전자적 형태로의 전환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자체 생산 및 수집 자료의 외부 배포시, 공공도서관을 반드시 포함시켜 귀중한 다문화 자료들이 더 널리, 더 오래 활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공문 생산에서 문서파일 방식을 벗어나도록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필요하다면 국내 많은 기관에서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나 <가족지원 통합시스템>과 같은 공동 활용이 가능한 정보시스템을 개발과 지원을 관계당국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에서도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다문화 관련 최신 정보를 생산하고 문서,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제공하여 홈페이지가 온라인 아카이브로써 기능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홈페이지와 SNS에서 다국어 지원과 커뮤니티 기능 강화로 이주민과 지역주민들이 정보생산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의 정보센터인 공공도서관들은 이제부터 지역의 다문화 유관 기관들을 다문화 자료 아카이빙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그들이 생산, 수집하는 자료를 도서관 자료 영역으로 인식해야 한다. 특히, 연구결과 조사대상 다문화 기관들은 자신과 밀접히 관련된 정부부처, 공공기관, 시민단체에서 생산한 자료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소장한 것으로 나타나 각 기관마다 자료가 특수하고 희귀한 성격이 강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 또는 자신과 관계된 기관들의 자료들만 소장할 뿐 지역 내 다문화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도서관들은 지금까지의 단행본 도서와 DVD 등의 전통적인 도서관 매체에서 탈피하여 사진, 낱장자료, 박물자료, 영상자료, 온라인 자원 등 지역사회 다문화 기관들이 생산, 수집한 매체에 대한 입수와 조직 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먼저 다문화 기관들을 찾아가 비전을 제시하고 협력을 요청하고 그들의 자료를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다문

화 기관들의 체계적 정보 관리를 위해 전산화, 목록 구축, 정보 검색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 조언과 지도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문화/다국어 도서를 일부 소장하였으나 도서대장 등록과 목록 구축, 장비 부착 등이 되지 않은 다문화 기관들을 대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무료로 보급하는 표준화된 자료관리시스템인 <KOLASYS-NET> 등의 설치와 입력 작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공도서관과 지역사회 다문화 기관과의 협력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 판단된다.

끝으로, 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의 피면담자들은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다문화 유관 기관이 보유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목록을 구축하고 검색을 지원하여 기존 주민과 이주민, 다문화 관계자, 관련 학계에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협력적인 아카이빙 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공감하였다. 다문화 기관 담당자 대부분은 각 기관은 공공도서관으로 보낼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보낼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도서관 담당자 대부분도 지역의 다문화 유관 기관에서 도서관으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배포해 주고, 필요시 다국어 목록에 이주민의 지원을 더할 수 있다면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과 자세를 바탕으로 지역의 다문화 기관들과 공공도서관들은 지역사회 다문화 정보에 대한 성공적인 아카이빙 활동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유관 기관들은 자신들이 생산, 수집한 다문화 자료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지역의 공공도서관들은 입수된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조직과 관리, 이용 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측이 뜻을 모은다면 지역사회 다문화 정보자원을 위한 아카이빙 활동에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다문화 유관 기관들의 다문화 정보의 생산, 수집, 관리에 관한 아카이빙 활동 실태를 살펴보고자 대구 지역에 국한하여 수행된 연구로써 연구의 지역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다문화 환경이 다른 국내 타 지역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들과 다문화 관련 기관과 단체들의 업무활동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구체적인 다문화 관련 정보의 생산, 수집 및 관리의 대안을 제시하는 후속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기영, 오해연. 2014.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다문화서비스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3): 77-100.
- 김익한. 2013. 마을성 아카이브의 철학과 방법 : 소통의 핵심 기재로 주민 간 공감대 필수. 『주민자치』, 20: 18-21.
- 노지현. 2012. 한국 도서관계의 다문화 서비스 방향 모색 - 미국 공공도서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2): 5-27.

- 박성우. 2015.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를 위한 상호문화 관점의 수용.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3): 371-392.
- 사공복희, 장우권. 2004. 재중 조선족 정보자원 생산과 콘텐츠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9(1): 173-201.
- 양수현, 차미경. 2011.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1): 311-332.
- 유기용 외. 2012.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이연옥, 장덕현. 공공도서관의 이주민서비스 전략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1): 357-384.
- 이영남. 2012. 공동체아카이브, 몇 가지 단상. 『기록학연구』, 31: 3-42.
- 이영숙. 2005. 시민단체 기록 분류방안 연구: 환경연합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5(2): 73-101.
- 이혜원. 2015. 다문화정책 방향 제시 및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2): 337-366.
- 이혜정. 2015. 대구·경산지역의 이주민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다문화와 인간』, 4(1): 87-105.
- 임진희. 2010. NGO 기록관리 컨설팅 방법 연구. 『기록학연구』, 26: 3-32.
- 장우권. 2012. 코리아 디아스포라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4): 403-425.
- 조용완. 2007. 이주민을 위한 국내 도서관 서비스의 현황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2): 245-269.
- 조용완. 2011. 협력기반의 다문화자료 입수 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4): 45-70.
-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http://www.liveinkorea.kr/center/default.asp?pzt=ct&cc=daegu-namgu>> [인용 2016. 3. 20].
-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 <<http://www.dgmodoo.com/>> [인용 2016. 3. 29].
- 대구광역시립북부도서관 <<http://www.bukbu-lib.daegu.kr/>> [인용 2016. 3. 10].
-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http://www.tglnet.or.kr/>> [인용 2016. 3. 11].
- 대구시청 <<http://www.daegu.go.kr/>> [인용 2016. 3. 15].
- 대구외국인력지원센터 <<http://www.dfwc.or.kr/>> [인용 2016. 3. 22].
- 대구이주민선교센터 <<http://mission4you.net>> [인용 2016. 4. 2].
-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http://dggwmigrant.org/index.php>> [인용 2016. 4. 2].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http://www.liveinkorea.kr/center/default.asp?pzt=mb&cc=daeguudonggu>> [인용 2016. 3. 20].

동구립 안심도서관 <<http://www.donggu-lib.kr/>> [인용 2016. 3. 25].

수성구립 범어도서관 <<http://library.suseong.kr/beomeo/>> [인용 2016. 3. 21].

수성구립 용학도서관 <<http://library.suseong.kr/yonghak/>> [인용 2016. 3. 21].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ng, Wookwon. 2012. "A Study on the Korean Diaspora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4): 403-425.
- Cho, Yongwan. 2007. "Current Status of Library Services for Immigrant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8(2): 245-269.
- Cho, Yongwan. 2011. "Investigating Library Cooperative Systems for Acquisition of Multi-cultural Material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4): 45-70.
- Kim, Giyeong and Haeyeon Oh. 2014. "Study on the Perception of Public Library Users on Multi-cultural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5(3): 77-100.
- Lee, Hyejeong. 2015. "The State and Tasks of Multicultural Support Policy at Daegu and Gyeongsan Area." *Multicultural Studies*, 4(1): 87-105.
- Lee, Hyewon. 2015. "A Study on the Direction for Planning and Modelling of Multicultural Policy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2): 337-366.
- Lee, Yeongnam. 2012. "Some Possibilities of Community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1: 3-42.
- Lee, Yeonok and Durkhyun Chang. 2013. "Strategies for the Services for Immigrant Population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1): 357-384.
- Lee, Youngsook. 200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lassification Schemes for NGO Recor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 Management*, 5(2): 73-101.
- Park, Seongwoo. 2015. "Accepting the Intercultural Perspective for Multicultural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3): 371-392.
- Rho, Jeehyun. 2012. "Toward the Multicultural Library Services in Korea : with reference to the America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2): 5-27.
- Sagong, Bok Hee and Woo Kwon Chang. 2004. "The General Facts and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Resources and Contents of Chinese Koreans."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9(1): 173-201.
- Yang, Sooyoun and Mikyeong Cha. 2011. "A Study on the Model of Multicultural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1): 311-332.
- Yim, Jinhee. 2010. "A Study on the Consulting Methodology for Building Records Management Scheme for NGO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6: 3-32.
- Yu, Giung. et al. 2012.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eoul: Pakyoungsa.

